



중국의 북방농촌에서 농망기가 되면 농민들은 얼굴은 황토에 맞대고 등은 하늘을 등지고서 부지런히 경작하고 농한기엔 고향을 떠나 성시에서 일한다. 하지만 반평생 고생으로 바꾸어 온 것은 왜 여전히 빈곤한 생활인가? 《9평》! 《9평공산당》을 보면 고난속에서 깨어나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진상을 명백히 알면 복을 얻는다

# 하늘이 내린 복 제83기

본기안내

- 싸우기를 좋아하던 나는 변했다
- 부자의 같은 발 수확은 하늘 땅 차이였다
- 대동맥이 상하여 목숨이 가들가들할 때 사부님께서 그를 구해주셨다



명혜정기 간행물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인터넷 봉쇄 돌파)

## 목 록

- 【신전문화】 재물을 탐낸 스님이 2백전을 흠쳐 전  
생에 2번이나 짐승으로 환생했다 ... 3
- 【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해 죽음에 직면한 나  
는 후사를 안배하였다..... 6  
싸우기를 좋아하던 나는 변했다
- 【진상료해】 파룬궁 가까이에 다가가다..... 16
- 【선한 일념은 복을 얻는다】 ..... 17  
대동맥을 상하여 목숨이 가들가들할 때 사부  
님께서 그를 구해주셨다 / 피부병이 다 나았어요  
목숨을 구해주신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부자의 같은 발 수확은 하늘 땅 차이였다 / 3퇴  
후 중등전문학교 학생이 좋은 일터를 찾았다
- 【불광이 널리 비추다】 ..... 25  
빈곤속에서 2만원을 주웠으나 한푼도 가지지  
않았다
- 【인간예언】 내년엔 먹을 기름이 있겠구나 ..... 28



### 동태망에 올라 봉쇄된 진상을 보자

해외 전자우편으로 아래의 주소에 우편을 보내되  
내용은 임의로, 제목은 임의로 (칸은 비우지 않고) 하  
면 약 10분 후 답을 넘는 프로그램을 얻게 된다.

자유문을 얻는다: [freeget.one@gmail.com](mailto:freeget.one@gmail.com)

## 탈당탈단탈대 (3 퇴) 방법

\*해외 전자우편으로 성명을 발표

[tuidang@epochtimes.com](mailto:tuidang@epochtimes.com)

\*인터넷 돌파프로그램으로 등록

<http://tuidang.epochtimes.com>

\*탈당전화: 001-416-361-9895 001-888-892-8757

\*탈당팩스 001-510-372-0176 001-702-248-0599

\*먼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후 다시 인터넷에 발표한다

■ 제시 : 공포로 인하여 중공은 탈당전화선에 수작  
을 피웠기에 통한 다음 록음에서: 이것은 빈호이기  
에 이 전화를 치지 마세요하면 **속지 말고 전화를  
끊지 말며 아주 빨리 통할수 있기에 서로 알려주길  
바란다.**

■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하였  
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  
은 모두 무효다. 왜냐하면 그 혈기앞에서 하늘에 대  
해 독한 선서를 할 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에게 바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  
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  
어야 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보증할수 있다!

하였는데 : 거석은 2.7 억년이고 5 백년 전에 붕괴된 것이며 “장자석”에서 그 어떠한 인공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내외 백여개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소식을 보도했으며 “장자석”의 도편은 또 귀주“장자석” 풍경구의 문표에 찍혀있다.

“장자석”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한다. 중공은 정권을 탈취한 이래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강제로 유물론, 무신론을 추구하고 투쟁철학을 선양하여 8 천만 중국 사람들의 비 정상적인 죽음을 초래하여 하늘이 노여워하고 사람이 분노하였으며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면 하늘이 다스릴 것이다. 《9 평공산당》책은 전면적으로 중공의 사교본질과 그것이 8 천만 중국 사람을 해쳐 죽이고 파룬궁을 박해한 죄악을 폭로했다. 《당문화해체》는 중공이 전통문화와 도덕을 파괴하고 건립한 한조의 “무신론”사악설을 포괄한 “당문화”계통이 중국사람을 속이고 독해한 것을 치중하여 소개했다. 이 두 책은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책이며 하늘의 충고는 명심해야 한다. 오늘까지 1 억 3 천 5 백 여만 중국 사람이 3 퇴 (탈당. 단.대) 성명을 하였으며 그들은 하늘의 충고에 순응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였다.◇

## 신전 문화

재물을 탐낸 스님이 2백전을 훔쳐

전생에 2번이나 짐승으로 환생했다

옛말에: “전생의 일을 알려면 바로 금생에 당하는 것이고 미래의 일을 알려면 바로 금생에 하는 것이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천리이다. 사람이 그 어떤 잘못을 하였던가를 막론하고 모두 갚아야 한다. 아래의 이야기는 한 스님이 재물을 탐내어 향전 2백전을 점하여 련속 2생을 짐승으로 전생한 이야기다. 상세한 정황은 이러하다.

2003 년 8 월의 어느 하루 한 파룬따파 제자와 마을의 60 여세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봉착했던 하나의 진실한 이야기를 말하였다. 할머니의 할아버지 주(邹)씨 선생은 젊어서 장사군이어서 늘 외지로 다니면서 방방곳곳 매우 많은 곳에 갔었다. 한번은 그가 하북 래원 현성에 오자 시내의 한 려관에 머물렀다. 주씨 선생은 매번 래원에 일보러 오면 모두 이 려관에 머물렀다. 려관의 한 회계선생은 마음이 따뜻하고 선량하여 사람을 성근히 대해주고



일도 깔끔하게 잘하였다. 때문에 주씨 선생은 그를 찾아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이 회계선생의 엄지 손가락은 일년내내 헝겊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가 씌워져있었다. 매우 많은 사람은 주씨선생을 포괄하여 모두 이 손가락이 어찌된 영문인가를 물었더니 회계선생은 단지 그의 엄지에 부스럼이 생겨 줄곧 아물지 않기에 싸맸다고만 했다. 이번에 주씨선생이 또 이 손가락을 묻자 회계선생은 말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 손가락을 보이고 당신에게 어찌 된 영문인지를 알려 주겠어요.” 그가 헝겊 주머니를 벗기자 주씨선생은 놀라 멍해졌다. 원래 이것은 일반 손가락이 아니고 부스럼이 생긴 손가락도 아닌 새끼돼지 발쪽이었다! 회계선생은 매우 진지하게 그의 이전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어릴적부터 웬지 그는 그의 전생의 일들을 회억할 수 있었다. 그의 전의 전생은 한 절간의 스님이였다. 어느 해 절을 수리하려고 하자 어떤 향객(香客)들이 돈을 기부하였다. 당시 그는 재물을 탐내는 마음이 생겨 슬그머니 2 백전을 덜어냈다. 그가 죽은 후 이 2 백전을 탐내 점유하였기에 다음생에 당나귀로 전생하여 고생하고 학대받으면서 빚을 갚았다. 그는 일년내내 무거운 화물을 등에 지고 다니면서 휴식일이 없었다. 그의 등은

을 열고 마당에 나와 습관적으로 하늘을 쳐다 보고 말했다: “명년에는 먹을 기름이 있겠구나.” 그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나 공교롭게도 그의 딸이 엿들었다. 그의 딸은 이튿날 아침 밥도 먹지 않고서 급급히 시집에 가서 시집의 모든 밭에 유채씨를 심으라고 했다. 시집 식구들은 리해 할 수 없지만 며느리를 어찌할 수 없어 모두 유채씨를 심었다. 다음해 정말로 유채가 대 풍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해하면서 어찌 이런 선견지명이 있었는가고 하자 그의 딸은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천상의 변화는 매 개인의 생활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매 개인 생명의 미래에도 관련된다. 2002년 6월 귀주성 평당현 장포향에서 거석을 발견하였는데 절단면에 놀랍게도 “중국공산당망”이란 6 큰 글자가 나타났다. 중국 지질학계 3개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조에서 고찰하고 증실



그림: “장자석” 사진, 왼쪽 아래 작은 그림 풍경구문표.

오고가는 차량이 비닐 밭 이랑에 손상주기에 향촌의 길에 밭 이랑을 펼 때면 길에 도랑을 파놓았다. 밭에 물을 다 주고나면 매우 많은 사람들은 제때에 고랑을 평평하게 메우는 것을 잊어버려 오고가는 차량에 불편을 주었다. 남보광은 보고나서 늘 묵묵히 길을 평평히 메워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파룬궁 수련생들의 인솔하에 마을의 기풍은 천천히 좋게 변해가고 있었다. 밭에 물을 다 준 후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길을 평평하게 메우는 것을 기억하였으며 재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잃어버린 주인에게 되돌려주게 되었다. 마을의 어떤 사람은 남보광과 말하기를 당신 파룬궁 수련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문 / 하북대법제자) ◇

## [민간예언]



대륙 북방의 한 농촌에는 천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종래로 천기를 루설하지 않았다.

하루 그의 딸은 남새씨를 심을 때 본가에 가 있었다. 그날 저녁 밤중에 그는 급급히 소변보려고 문

달아터졌고 상처는 끓기 시작했다. 주인은 그래도 그더러 멈추지 못하게 하였다. 화물을 한피 한피 보냈다. 후에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 그는 도중에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 죽은 후 얼마 대왕청에 갔더니 얼마 대왕은 말하기를: “너는 그 2백전을 아직 다 갚지 못했다.” 이어서 그는 또 새끼돼지로 전생했다. 이 새끼 돼지는 잘 먹고 잘 자라 몇 개월만에 2~3 백근이 넘는 큰 돼지로 자랐으며 돼지 도살자에게 도살당했다. 이쪽에서 돼지가 한창 뜨거운 물에서 털도 아직 채 뽑기 전에 그쪽에서 그는 또 전생하였다. 이번에는 어린 남자아이로 전생하였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한손의 엄지 손가락이 돼지 발톱 모양이었는데 바로 그의 이번 생이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회계선생은 말했다. 어릴적부터 자신의 이 단락의 옛 일을 알고나서 금생에는 탐내서 점하고 모해하는 일을 털끝만치도 감히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매우 성근하게 주씨 선생에게 알려주었다. 사람이 무엇을 하였으면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인과보응은 조금의 거짓이 없어요! 이 돼지발톱 손가락은 시시각각 그 본인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도록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다.

##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은 세상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어떻게 해야 만이 복의 혜택을 오래 누리도록 확보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천만년을 찾았으나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런 한무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파룬궁 수련을 통하여 심령의 안정과 신체건강을 얻었다. 그들중의 매우 많은 사람들은 원래 질병의 시달림을 겪었으나 파룬궁을 수련한 후 아주 빨리 질병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무병하여 몸이 가벼운”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마다 모두 심신이 수익한 이야기가 있으며 그들을 놓고 말하면 파룬궁은 심신건강의 원천이다.

## 그해 죽음에 직면한 나는 후사를 안배하였다.....

내가 남편을 알기 전의 2 년전 남편의 부친은 세상을 떠났으며 화장한 후 골회함을 집에 가져다 문쪽의 작은 방에 놓았다. 나는 결혼 후 어쩐지 잠이 없었다. 이로부터 나는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신경쇠약, 저혈압병에 걸렸으며 고혈압은 50~60, 저혈압은 30~40, 맥박은 1 분에 50~60 차였다.

나의 직업은 간호원이며 직업성 관계로 하여

밥을 먹은 후 남보광은 일찌기 공지로 일하러 갔는데 이때 여러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폐허의 낡은 등지(灯池)를 청리할 때 남보광은 당기는 순간 갑자기 또 한 묶음의 돈을 발견하였다. 돈을 주었을 때 그는 세여 보지도 않고서 바로 돈을 치웠다. 후에 세여보니 이 두 묶음의 돈은 뜻밖에도 2 만원이나 되었다.

1 원을 두 쪼각으로 나눠 쓰고 싶어하는 사람을 놓고 말하면 2 만원이란 돈은 틀림없이 상당한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남보광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남보광은 공지 령도를 통하여 집 주인을 찾았다. 집 주인은 돈이 뜻밖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하였다. 집 주인은 당시 추호의 우려도 없이 말하였다. 이렇게 하세요. 이 돈을 우리 서로 반으로 나누자요. 남보광은 그 당시에 말했다: 대법제자로서 나의 물건이 아닌 것을 나는 한푼도 가지지 않아요. 내가 만약 돈을 탐냈다면 나는 당신한테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예요.”

당시 집 주인은 너무나 감동받았다. 그후로부터 매년 추석이나 설날등 명절이 되면 집 주인은 늘 물건을 사 가지고 남보광의 집에 방문왔으며 그를 친척처럼 대해주었다.

수련후의 남보광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일종의 습관으로 되었다. 당지 농촌에서 밭에 물을 줄 때면



때 낡은 집을 허무는 일을 하면서 주는 현금 2 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었다.

2008 년 남보광은 7 년간 중공의 박해를 받고 감옥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왔다. 이 7 년래 그의 아내는 혼자서 아이 몇을 데리고 간신히 생활해왔다. 이 기간 신변의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때때로 그녀 모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 일가족은 그야말로 살아가기가 어려웠다.

2009 년 2 월 3 일 남보광은 당지의 집짓기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당시 비교적 추운 날씨여서 밖에서 시공하기에는 아직 이르니 그들은 주로 집을 허무는 일을 하였다. 찌꺼기를 수련하기에 남보광은 일을 함에 있어서 종래로 가리지 않았으며 왕왕 가장 더럽고 힘겨운 일에 그가 나섰다.

이날 그는 한창 남피현 봉씨의 집을 허물고 있었다. 정오 12 시 좌우에 남들은 모두 밥먹으러 집으로 돌아갔으나 남보광은 일을 조금 더 하고 가려 했다. 바로 이때 남보광은 갑자기 땅에 한뼘음의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들이 돈을 자기 소유로 할 것을 우려하여 그는 돈을 잘 건사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도 감히 보이지 못했다.



기실 나의 담은 매우 컸으나 나는 집에 가기 싫었으며 홀로 감히 집에 있지 못하며 심장은 항상 펄펄 뛰고 늘 공포스러워 때로는 무서워 소리 지르기도 했다. 때문에 온종일 괴롭고 수심에 찬 나의 얼굴은 누렇게 온몸에 힘이 없었고 두 다리는 나른하며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란 더욱 없었다.

장기간 신경쇠약성 실면으로 머리는 늘 흐리멍텅하였고 힘이 없었고 또 풍습병, 만성 기관질염에 걸려 해마다 봄 가을 두 계절이면 항상 점적주사를 맞아야 했으며 또 심한 과민성 쇼크로 구호실에 실려가 구조받았고 그 쇼크가 일어나고 몇분후면 다른 부위로 옮겨 갔다. 나의 베개 옆과 가방, 옷 주머니에는 늘 일회용 주사기와 구급약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남편은 내가 잘못 될가봐 잠도 감히 자지 못하였다. 과민성 쇼크로 인한 순환장애로 하여 심장, 뇌혈 공급부족, 두 하지 부종으로 저도 모르게 소변이 흘러 내렸다. 심률이 완만하여 1 분에 50~60 차씩뛰었고 얼굴색은 어둡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하였고 혈액검사에서 혈색소는 18.4 로 고농혈증 (혈조증) 이여서 혈액은 걸죽하여 흐르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고 수시로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느낌에 나는 몹시 두려웠다. 구복 구심완은 두알로부터 10 알까지 증가해도 소용없었으며 또 요추판 돌출병에 걸려 왼쪽 다리 통증으로 걸기도 어려웠다. 이렇

게 많은 병으로 전문의사의 임상검사에서 병명이  
완정하지 않았고 매 하나의 병진단 검사는 모두 완  
정하지 않아 신경문란성 신경관능증으로 확진했다.  
후에 또 오른 쪽 상하체 손발이 말을 듣지 않기 시  
작하고 말하려면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간호사이고 남편은 의사이다. 우리는 옛병  
이 가시지 않았는데 또 새로운 병이 온 것을 알았다.  
그것은 머리에 또 문제가 생겼다 (뇌경색) . 남편의  
얼굴은 삼시에 창백해지면서 얼굴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명의 마지막에 이르  
렀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내가 리해되지 않는 것  
은 남들은 병에 걸리면 약치료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며 뿐만아니라 명확한 진단도 없으니 운명은 너  
무나도 공평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소파에 누워 할수없이 남  
편에게 후사를 안배하였다. 남편은 나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우리 외지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오. 나는 말했다. 안 갈래요 어디로 가도 이병은 치  
료방법이 없어요. 남편은 나에게 권하였다 : 우리 부  
처님을 믿기오. 나는 말했다. 안 믿을래요. 보세요,  
절에 간 사람들 향을 태우고 절하고 종이를 태우고  
주절대고 싸우고 욱하며 못하는 짓이 없어요. 남편  
은 살 수만 있다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죽으면 죽  
었지 그런 주절주절거리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했

었지. 탈출 하렘. 소정은 당시 견결히 단에서 탈출  
하겠다고 했다. 이후 나는 그에게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을 주어 그는 늘 인터넷에 올랐다. 사무실  
에서 소정은 늘 동료들에게 공산당의 폭정을 호되  
게 욱하였다.

내가 그에게 진상을 말해주고나서 한달 후 소  
정은 내가 있는 직장을 떠나 직접 중경으로 갔다.  
한주일 후 전화로 한 사업직장에서 일자리를 마련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반년 후 소정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보러  
와서 말하기를 직장의 령도는 그를 각별히 중시하  
면서 그에게 두가지 항목을 주었다고 했다. 름시  
공으로부터 새 직장의 골간으로 된 것은 모두 소  
정이 “3 퇴”(탈당, 탈단, 탈대)를 선택하여 복을 받  
은 것이다◇

## [불광이 널리 비추다]

빈곤속에서 2만원을 주었으니 한푼도 가지지 않았다



하북성 남피현(河北省南皮县) 파룬궁 수련생  
남보광(南宝光 가명) 은 자신이 가장 돈이 수요될



우리의 것은 잘 심지 않았나요? 원래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은 까닭이었군요. 이렇게 신기하나요! 이후 우리도 사촌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역시 성심으로 이 9 글자를 읽겠어요.” 그녀는 즉석에서 대법의 진상 호신부, 진상 소책자, 진상 CD 를 가져갔다

부자의 같은 발수확은 하늘땅 차이였다! ◇



소정(小丁)은 지질학교 중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우리 직장에서 임시공으로 일하였다. 사업에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일도 적지 않게 하였으나 편제 해결에는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사업단위에서 임시로 일하기에 로임도 자연히 높지 않았다.

야외에서 일하는 기간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쓰게 되어 나는 그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귀주 장자석“중국공산당망”으로부터 우담바라 꽃이 피어난 기적 그리고 《9 평공산당》의 내용 파룬궁이 국내에서 박해받고 있는 정황까지 말해주었다. 소정은 듣고서 매우 놀라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했다:너는 단원에 가입하였

다. 남편은 또 말했다. 당신은 기공을 련마하오. 나는 안갈래요 기공 역시 사람에게 병치료하는 것이며 더욱 주절거리는 것이며 역시 그런 혼잡한 것들을 모시고 있어요. 남편은 또 말했다: 우리 병원의 서기 마누라가 련마하는 기공은 남들이 말하는 것과 틀리니 꼭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서기가 그의 아내더러 련공하라고 할 수 있겠소? 당신이 가보우. 혹시 우리도 무엇을 믿어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도 많은 병을 식물신경문란, 신경관능증으로 확진했으니 말이오.

나의 마음은 동했다:그래요. 만일 이 기공이 기타 기공과 다르다면 나는 배우겠어요. 죽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날은 1996년 5월 3일이였다. 내가 서기집에 오자 그는 매우 기뻐하면서 나에게 그의 아내가 련마하는 파룬궁을 소개하면서 말했다:“파룬궁은 아주 좋아요. 책을 내가 다 보았는데 불가상승의 대법이고 수련이고 부처로 수련되는 것이예요.” 나는 부처는 사람이 수련한 것인가요? 그는 그래요.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전법륜》책이 어떻게 좋다는 것을 말했다. 나는 기뻐서 말했다:“나도 배우러 갈래요. 사람이 부처로 수련성취한다면 얼마나 신성하고 위대한가요. 어데가서 배우나요?” 그가 현공회에서 한다고 말하자 나는 너무

멀어요. 나의 이 심장은 감히 그렇게 멀리까지 갈수 없어요라고 하자 그의 마누라가 말했다 : 관촬아요. 갑시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심장 구급약을 가지고 갔다. 이상한 것은 가는 길에 신체는 종래로 없었던 편안함을 느꼈고 가벼운 걸음으로 그곳에 도착하였다. 집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으며 사회자가 없지만 기쁨은 매우 좋았으며 사부님의 설법록 상을 방송하고 있었다. 제 2 강 천목에 관한 문제를 듣는 나는 온 몸에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찬바람이 나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 사부님께서 강의를 마치자 나도 잠에서 깨어 났으며 나는 몽땅 들은것 같았으며 나는 나 자신이 왜서 이렇게도 많은 병이 있음을 명백히 알았고 뇌에 병이 있었기에 잠이 들었던 것이고 전신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차가운 기가 나가는 것은 사부님께서 나의 신체를 정화시켜 주신 것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나의 마음은 13년래 종래로 없었던 즐거움과 상쾌함을 느꼈으며 총계를 오르는 것이 마치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과 딸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나의 얼굴색이 좋아졌으며 사람은 정신이 나고 웃음이 피어 있어 마치 다른 사람같다고 했다. 남편은 나에게 문표값이 얼마인가 묻자 나

파룬따파는  
좋다

당신 사촌숙부, 숙모 (모두 80 여세이다) 의 신체보다 못해요.” 나는 말했다 : “당신은 그 영문을 아세요?” 사촌 숙부는 앞질러 싱글벙글하면서 말했다 : “나와 너의 사촌숙모는 몇년전에 너한테서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찐싼런은 좋다’를 읽으면 복받는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잠자기 전에 읽고 길을 걸으면서 읽고 밭에서 일하면서 읽고 농작물을 보면서 읽었더니 이 몇년간 신체가 좋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연민(彦敏) (그의 아들) 것 보다 잘 자랐다. 작년 가뭄으로 하여 온 마을의 밀 산량은 모두 감소되었으며 연민의 밀 산량도 마찬가지로 감소되었다.” 제수는 이어서 말했다 : “우리의 밭은 바로 곁에 있으며 밭은 연민이 갈고 밭은 연민이 파종하고 종자도 같았고 단지 비료만 달랐어요. 우리는 그래도 고효능 비료를 쓰기로 하여 매무에 백원이 들었어요. 그들은 건비료(糞肥)를 썼는데 매무에 약 60 원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무에 쓴 화확비료 비용은 그들의 두배이지만 매무의 밀 산량은 그들의 반 밖에 안돼요. 작년에 우리 밭 산량은 5 포대나 줄었고 그들은 3 포대나 증가했어요. 나는 늘 연민을 나무랐어요. 왜 당신 아버지 밭은 잘 심어주고



의사선생은 빛을 쏘이는 한개 치료과정은 10 번이라고 했다. 나는 3 번만 쏘였는데 몸의 종기가 전부 사라졌고 7 번 쏘이자 의사선생은 나를 퇴원시켰다. 도합 25 일간의 치료를 거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병실에서 나와 같은 병인 어떤 사람은 4 만여원을 들이고도 여전히 낫지 않았는데 나는 이번에 7 천원을 쓰고 나왔다. 언니가 말하기를 형부가 의사선생에게 물었더니 의사선생은 이런 병은 10 만, 8 만이 없으면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또 어떤 의사선생은 이 병은 암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치료하기 매우 어렵다) .

파룬궁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고 사부님께서 나를 병마의 고통속에서 해탈시켜주셨다. 오늘 나는 파룬궁 사부님께 절을 올리면서 생명을 구해주신 자비롭고 위대한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부자의 같은 발 수확은 하늘 땅 차이였다

【대륙에서 온 소식】 금년 정월 초닷새 날 사촌 숙부집에 설 인사하러 갔었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사촌 제수에게 신체는 어떠가고 물었다? 사촌 제수는 얼굴을 찌프리고서 말했다 : “몇 가지 병에 시달려 겨우 지탱하면서 겨우 일을 조금 해요. 나는

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믿지 않으면서 어디에 돈을 받지 않는 기공이 있는가고 했다. 침대에 누워 잠자려 하자 남편은 나에게 여러 가지 병의 약을 가득 준비해놓고 나에게 물을 부어 주려는 사이에 돌아다보니 나는 잠들었다 ! 이튿날 아침 그는 나에게 알려주기를 : 당신이 그렇게 달게 잠자는 것을 보고 차마 깨우지 못했소. 그렇다. 나는 13 년동안 하루도 깊은 잠을 잔 적이 없다. 나는 격동되어 말했다 : “이 공법은 너무나도 좋아요. 나는 살았어요.”

이튿날 나는 사부님의 설법록상을 보러 가서 아울러 몇권의 대법 서적과 사부님의 사진을 모셔왔다. 온 가족은 기뻐 어쩔줄 몰랐으며 딸은 말하기를 : 빨리 나의 방백에 붙이세요. 딸이 밤중에 깨어나 두 손으로 머리를 긁고 있었다. 나는 놀라 깨어나 딸에게 영문을 묻자 딸은 머리 안쪽이 가렵다고 했다. 나는 사부님께서 너의 머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딸이 두살 때 유치원에서 놀다가 넘어져 뇌진탕이 왔었다. 이로부터 딸의 병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때로부터 딸의 학습은 반에서 마지막 몇번째로부터 앞자리 몇번째로 제고되었으며 아울러 중점고중에 붙었고 또 대학에까지 갔으며 지금은 남방에서 사업하고 있다. 남편의 기관질염과 저열병은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해서부터 역시 가뭇없이 사라졌다. 나는 주사 한대도 맞지 않고 약 한알도 먹지 않고 사부님께서 나의 신체를 정화해주셔서 나는 지금 무병으로 온 몸이 가벼워졌다. 우리 온 가족은 모두 매우 행복하며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러 나와 온 가족을 구해주신 자비롭고 위대한 사부님께 감사드리며 사부님이 구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공의 거짓말을 믿지 않기 바란다. 파룬따파는 불법이고 파룬따파는 정법이며 우리 일가족의 신체변화가 파룬따파는 초상적인 과학이라는 것을 견증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기억하기 바란다: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 오직 대법에 동화해야 만이 비로서 행복한 미래가 있다.

## 싸우기를 좋아하던 나는 **변했다**

나의 천성은 선량하지만 어릴적부터 당문화에 젖어 투쟁심이 매우 돌출하여 누가 나를 억울하게 군다면 끝까지 시비를 밝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았다.

직장에서 일한지 반년도 안될 때 직장의 로직원이 공금 100원을 꾸고는 승인하지 않으면서 한번도 아니고 재삼 잡아떼었다. 그때 그는 이미 전근되어 성소재지에서 일하였다. 나는 화가 치밀어 그가

의 흉두같은 크기의 작은 종기가 생겨 심하게 가렵고 괴로웠다. 긁어 터지면 피가 흘러 옷과 이불에는 모두 피자국이였다. 해빛이 강할 때면 바깥 출입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해빛이 비추면 전신이 더욱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당지에서 서의, 중의에게 모두 보였고 반년을 치료하였어도 호전되지 않고 도리어 갈수록 더 심해졌다.

나의 언니는 파룬궁을 련마하였으며 나에게 대법의 진상을 말해주고 아울러 나더러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으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사당의 무신론 독해를 깊이 받았기에 그다지 믿지 않았으며 늘 내가 기억못한다고 거절하였다. 2012년 9월에 나는 외지에 가서 치료하려고 생각 하였다. 떠나기 직전에 언니는 나에게 간독성종양 환자가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고 3일 후 간종양검사에서 종양이 사라졌다는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더러 꼭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다. 이번에 나는 믿었다.

외지에 가서 나는 매일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었다. 외지에서의 치료법은 먼저 물을 떨구고 다음 빛을 쏘이었는데

자신은 “파룬따는 좋다”를 읽고서 구원되었다고 말했다. 의사 선생은 듣고서 그를 고무격려하면서 말했다 : 그럼 당신의 팔은 꼭 나아질 것이다.

위내의 고모는 그의 집에 가서 위내에게 말했다 : 너는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어라. 동시에 위내에게 대법 사부님의 설법 록음을 틀어 주었다. 몇일 후 대법의 기이함이 위내의 몸에서 재차 나타났다. 위내의 팔이 움직일 수 있었고 쓸 수 있었다.

위내는 내심으로부터 사부님께 감사드렸다 ! 대법에 감사드렸다 ! 그때로부터 누가 위내에게 팔이 어떻게 치료되었는가를 물으면 위내는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 대법 사부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 대법 사부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

## 피부병이 다 나았어요

### 목숨을 구해주신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휘에서 온 소식】 나는 안휘 (安徽)의 한 보통 정년퇴직 직원이며 2012년 년초에 일종의 피부병에 걸렸는데 은설병 (銀屑病) 이라고 했다. 전신에 하나 하나

일보러 왔다하면 그가 어느 사무실로 가면 나는 뒤쫓아가 그를 욕했다. 그가 제발이 저리어 문을 닫으면 나는 즉시 높은 소리로 욕하면서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단어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였다.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으면 전문 차를 몇번 바꾸어 타면서 먼 성소재지에 가서 그를 욕했다. 그는 나만 보면 피하였다.

후에 그는 그의 령도를 찾아가서 나의 령도를 찾아 이 일을 처리해 달라고 빌었고 나더러 더는 그를 찾지 말게 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그래도 분하여 불평을 부리면서 그가 죽어도 그를 모르는 척 하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다. 그때 나는 겨우 20살이며 13년을 공부했어도 어쩌면 그렇게도 교양이 없었는지 ! 만일 줄곧 지금까지 발전했다면 자신이 어떤 무지막지한 녀자로 변하였을 지도 모른다. 만일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금이라면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와 도리를 말할 것이며 그의 립장에서 그를 생각했을 것이다. 년세가 있고 혹은 안면이 가려워서 ? 만일 그가 여전히 고집부린다면 나는 평정한 마음으로 그를 대신하여 돌려 주었을 것이며 마음속에서 그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다툼 쌍방이 모두 손상을 입는 결말은 몇개의 100 원으로도 미봉할 수 없지 않는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나는 이런 강렬한 투쟁심은 정말로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다. 하여 나는 찌뚱런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문제에 봉착하면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더욱 좋은 사람 도덕이 고상한 사람이 되고 사부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가정에서 명백히 손해를 보았다. 남편은 독남인데 큰 누이가 집에 와 있었다. 하지만 언녕 집을 사고 분가하였다. 하루 남편은 풍수보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말하기를 : “당신의 집터가 너무나 좋아요. 가로 보나 세로 보나 모두 높은 곳이에요.” 우리더러 꼭 집에 돌아가 집을 짓으라고 하면서 돈이 모자라면 빌려 줄 수 있다고 했다.

그후 큰 누이는 모든 수를 다하여 그 집을 차지하였다. 이 일로 하여 시아버지는 세상을 뜨면서도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가 병으로 앓던 몇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단지 우리들이 그를 보살폈다. 하지만 그의 독자 아들은 집의 벽돌 한장기와장 한개마저 갖지 못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친척들은 가만있지 않으면서 꼭 우리를 위하여 가산을 되돌려 받게 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나에게 어쩌겠소? 라고 묻자 나는 말했다: 당신도 다투지 않는데 (그는 수련하지 않았다)

과정에 위내는 마음속으로 줄곧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읽었으며 그의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는 대법 사부님께서 생명의 마지막 시각에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수술 후 위내의 대동맥을 비록 이어 놓았으나 대동맥과 연결된 쪽의 팔에 신경이 없고 지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자 의사선생은 검사하고 나서 팔이 불구로 되었다고 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촌형은 이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다: 이를 어쩌나? 이 젊은 아이가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하겠는가! 위내의 누님은 초조한 마음으로 의사선생에게 물었다: 이 팔이 불구로 되었다면 이 팔의 근육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나요? 의사 선생은 엄숙히 말했다: 당신이 그의 팔 근육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면 당신은 교수예요.

가족들은 또 위내를 데리고 할빈 의과대학에 가서 치료받았더니 할빈 의과대학의 의사 선생도 똑같은 말을 했다: 위내의 팔은 치료할 수 없으며 이미 불구로 되었다.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 친인들은 위내를 집으로 데려갈 수 밖에 없었다. 위내 자신도 이 팔이 이렇게 불구로 되는 것이 내키지 않아 집 근처의 작은 진료소에 가서 치료받았다. 진료소의 의사가 이런 상황을 보고 경과를 묻자 그는 의사에게 그가 겪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울러



구쳐 나왔다. 그는 다급히 목의 상처를 누르고는 신속히 거리로 달려가 택시로 병원에 가려 했다. 그의 상처가 너무 심하여 목에서는 피가 곧추 밖으로 솟구쳐 나왔기에 거리에서 오가던 차량의 운전기사들은 온 몸이 피투성인 그를 보고 누구도 차를 세워주지 않았다. 그는 절망하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그의 심장박동은 느려졌고 온 몸이 나른해지면서 길거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 위내의 정신은 매우 또렷했고 속으로 그의 생명이 잘못될 것을 알았다. 절망속에서 그는 갑자기 고모가 그에게 이야기해주었던 파룬궁 진상이 떠 올랐다. 하여 위내는 안간힘을 다하여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 사부님 나를 구해주세요!” 위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이미 소리마저 낼 수 없었다. 이때 한 착한 분이 120에 전화걸었고 한 아주머니가 흰수건으로 위내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 나오는 상처를 막아 주었다. 120 구호차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구급할 때 의사선생은 위내의 몸에 있는 피는 한 줄기밖에 남지 않았으면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30% 라고 하였다. 수술 전 의사선생은 가족한테 전화걸어 속히 병원에 와서 서명하라고 하자 위내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전화로 울면서 말했다. 가도 죽고 가지 않아도 죽게 되었으니 병원에서 대리서명해주세요. 수술

내가 뭘 다투겠어요? 후에 친척들은 집에 와서 꼭 우리들을 위하여 집을 빼앗겠다고 하였다. 당시 나는 이미 수련한지 반년이 되었다. 수련이 착실하지 못하여 남들이 말하자 마음이 뒤죽박죽되었으나 줄곧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비록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으나 나는 사부님께서 우리더러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에 봉착하면 모두 남을 위해 생각해야 하며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 하여 나는 그들의 호의에 감사드리면서 그들과 말했다: “만일 우리가 집을 빼앗아 온다면 우리와 큰 누이 집은 이후 원쑤가 돼요. 됐어요, 큰 누이 일생이 얼마나 불쌍한가요. 재난이 많은데 이 집이 있어 그녀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좋지 않나요.” 나는 우스개로 말했다. 금후 큰 누이 집에서 정말로 황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러면 황친이에요! 이렇게 되어 한차례 가정의 풍파가 평정되었다.

후에 나의 친구들은 류사한 일에 봉착할 때면 모두 나와 비교하면서 나와 비교해보면 괜찮다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대법의 위력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집터와 집은 나를 얼마나 괴롭힐지 모른다? 나는 오늘 당당하고 명백하고 초월한 신선처럼 유쾌히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부님이 싸우기 좋아하는 나를 개변시킨

덕분이다.(문 / 운남대법제자)

## 파룬궁 가까이에 다가가다

파룬궁은 1992년 리홍지 선생이 중국 장춘에서부터 전해왔으며 그의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와 사람의 도덕 승화에 대한 호소력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련에 들어섰다.



짧디 짧은 몇년 간 중국의 대강남북에 전해졌다. 이에 대하여 1999년 7월 중공이 박해를 발동하기전 대륙 매체에서는 모두 정면보도를 하였다: 1997년 12월 24일, 《의약보건보》에서는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파룬궁이 으뜸이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1998년 11월 24일, 상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 세계에 약 1억인이 파룬따파를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다……오늘 날,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 졌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의 표창, 지지의안과 편지 등을 3000여가지 수여받았다. 파룬궁의 주요저작 《전법륜》은 30여종의 문자로 번역되어 출판 발행되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의 애대를 받고 있다.

## [선한 일념은 복을 얻는다]



일부 중공사당 선전의 독해를 받은 중국 사람들은 파룬따파란 말만 들으면 바로 진실이 아닌 먹칠 선전을 생각한다. 하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파룬따파가 모욕박해당하는 기간에 점차 대법의 진

상을 명백히 알자 복운도 잇따라 왔다.

## 대동맥이 상하여

## 목숨이 가들가들할 때 사부님께서 그를 구해주셨다

위내(魏乃)는 금년에 27 살이며 집은 흑룡강성 할빈시에 있다. 위내의 고모는 파룬따파 수련인이며 매번 그를 만나면 그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파룬궁이 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는 진상을 이야기 해주었다.

2012년 5월에 위내는 학강시(鶴崗市)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하였는데 작은 일로 동료와 다툼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성나서 크게 싸우다가 동료는 주방의 식칼을 손에 들고 위내를 향해 내리 찍었다. 바로 그의 목의 대동맥을 내리 찍어 삼시에 피가 솟